

홀리를 축하하는 것은 완전히 순수해지는 것과 모든 이의 산스카라가 조화된다는 뜻이다.

오늘 밥다다는 곳곳에서 가장 성스럽고 최고로 높은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었다. 너희 자녀들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한 영혼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느냐? 너희는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사이클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너희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자를 찾을 수 있는지 보아라. 너희가 통치자일 때 너희보다 더 위대한 왕국을 가진 자가 누구 하나라도 있느냐? 숭배되고 찬양된다는 면에서 너희보다 더 크게, 또 올바른 방식으로 숭배되는 자가 하나라도 있느냐? 드라마의 경이로운 비밀은 참으로 고귀하며, 영혼인 너희들은 지금 이때에 살아 있는 형태 안에서 지식을 토대로 그 비밀을 알고, 또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의 형태도 역시 인식한다. 한편에는 살아 있는 영혼인 너희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의 살아 있지 않은 형상이 있다. 너희들은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너희는 살아 있지 않은, 숭배받을 가치 있는 형태와 살아 있는 형태 두 가지로 존재한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연극이다! 너희의 왕국에 대해서, 너희가 가진 왕국은 장애로부터 자유롭다.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너희 영혼들만이 그렇게 흔들림 없고 부동한 왕국을 가진다. 왕이 되는 이들은 많지만, 세상의 황제들이며 세계 황제들의 가족인 너희가 그 중에서도 최고로 높다. 그러니 너희는 왕국에서 가장 높으며 숭배받을 가치 있는 형태에서도 가장 높다. 지금 합류시대에 너희는 신에게서 유산을 받을 권리, 즉 신과의 만남을 축하할 권리와 신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어떤 영혼이 신의 가족이 되겠느냐? 오직 너희만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너희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 너희는 지금 너희의 유산을 차지하면서 완전해지고 있으며 곧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합류시대의 행복, 합류시대의 성취, 합류시대의 때는 참으로 아름답지 않느냐? 그것들은 매우 사랑스럽다! 이 합류시대의 너희의 시간은 너희가 통치하는 때보다 더 사랑스럽지 않느냐? 이것이 더 사랑스럽냐, 아니면 너희는 빨리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럴 경우 너희는 왜 바바에게 멸망이 언제 일어나겠느냐고 묻느냐? 너희는 여전히 멸망이 언제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에 너희가 어디에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밥다다가 이르는데, 너희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일 것이다. 너희가 육신이나 미묘한 형태에 들어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하면 너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사카르 바바 시절에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던 새끼 고양이들이 어찌 되었느냐? 고양이들은 안전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들이 불에 타버렸느냐? 그들 모두 안전했다.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할 때 너희 자녀들은 늘 안전하다. 너희의 지각이 다른 어딘가에서 바쁘면 너희는 그것에 영향 받을 것이며, 너희는 이런저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결합되어 있으면 너희는 단 1초도 혼자 있을 수 없으며, 늘 안전하다. 때때로 카르마 요가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혼자라고 여긴다. 너희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완전히 혼자야! 내가 할 일은 너무 많아!” 라고 외친다. 너희는 지치게 된다. 그러니 왜 아버지를 너희의 동반자로 삼지 않느냐? 너희는 두 팔을 가진 이를 동반자로 만들기를 원한다. 너희는 어째서 팔을 천 개 가진 이를 동반자로 삼지 않느냐? 누가 너희에게 더 크게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 팔을 천 개 가진 분이나, 두 팔을 가진 사람이나?

합류시대의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은 혼자일 수가 없다. 다만 너희가 봉사하고 카르마 요가를 하는데 지나치게 바빠진 나머지 바바의 동반을 취하기를 잊는 탓에 지칠 뿐이다. 지치면 너희는 바바를 기억하면서 “제가 지금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라 묻는다. 지치지 마라! 바바는 너희가 잠에서 깬 때부터, 일어나고, 행위들을 행하고, 봉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너희의 동반자가 되어 주기 위해서 왔다. 바바가 무엇 때문에 지고의 거주지를 떠나 이리로 오느냐? 그는 너희와 같이 있어 주려고 온다. 아버지 브라마가 아비약트가 된 이유도 역시 너희에게 협조해주기 위해서였다. 아비약트의 형태에서 협조하는 속도는 육신의 형태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다. 아버지 브라마가 그의 거주지를 바꾼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아버지 쉬바와 아버지 브라마 둘 다 항상 너희들에게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바를 생각하자마자 너희는 그의 협조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끊임없이 그저 봉사만 기억하고 그저 봉사, 또 봉사뿐이며, 아버지는 한쪽에 앉혀 놓아서 그가 거기서 모든 것을 지켜보게 만든다. 그래서 아버지는 초연한 관찰자로서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며 너희가 어느 정도로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지켜본다.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여기에 다시 돌아와야 하므로, 바바의 동반을 떠나지 마라. 너희의 권리와 너희 사랑의 미묘한 끈으로 바바를 너희에게 묶어두어라. 이 끈이 약간

헐거워지는 탓에 너희의 사랑이 느슨해지고 그러면 너희의 권리가 너희의 의식 밖으로 내몰린다. 더 이상은 그러지 마라! 전능한 권위자가 너희와 함께 있어주겠다고 한다. 너희가 사이클 전체 중에서 다른 언제 이런 제안을 받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밥다다는 초연한 관찰자로서 너희 스스로 모든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합류시대 너희들의 행복과 행운이 계속 드러나 있게 해라. 너희가 바쁜 탓에 너희 지각이 다른 어딘가에서 분주하고 그것에 대한 너희의 의식도 역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만일 너희가 하루 동안 아버지를 기억하는지 아니면 그를 잊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에 대한 너희의 기억이 드러나 있느냐, 안에 합쳐진 상태로 있느냐? 너희의 단계는 어떠한가? 너희의 단계가 드러난 의식이나, 합쳐져 있는 의식이나?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나? 그러면 너희의 기억은 왜 드러난 형태가 아니냐? 너희의 기억이 드러나 있을 때 너희가 받는 도취감, 힘, 협조, 성공은 대단히 크다. 너희와 바바와의 관계는 이번 단 한 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바바를 기억하기를 잊는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다. 비록 아버지 쉬바가 황금시대에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너희는 여전히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아버지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옳다. 그래, 너희가 때로는 어떤 장애에 영향을 받게 되고 바바를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연스러운 너희 본연의 형태로 있을 때는 바바를 잊지 않지만, 너희의 기억은 안에 들어가서 합쳐진다. 그래서 밥다다는 너희 자신을 거둬들여 점검해보고 바바와 함께 하는 경험이 합쳐진 형태로 있는지 드러난 형태로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이르는 것이다. 너희는 바바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희의 사랑이 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깨어질 없다, 그렇지? 이처럼 너희들의 사랑이 깨어질 수 없으니 그 사랑의 유익을 취해라. 이 혜택을 누리려는 방법을 배워라.

이 사랑이 너희를 아버지에게 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밥다다는 안다. 너희를 마두반의 주민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너희들이 사는 곳의 상황이 어떠하든 거기서 너희가 노력을 얼마나 하든 너희는 여전히 마두반에 온다. 철시대의 상황들로 인해 표를 사기가 아주 어려운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밥다다는 알고 또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바바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지만, 이 상황들은 나날이 계속 더 늘어난다. 주님은 정직한 마음을 보고 기뻐하지만, 너희는 또 이런저런 형태로 어디선가 물리적인 협조도 역시 받는다. 너희가 이중의 외국인이든 바라트에 살든,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은 너희가 어떠한 상황의 장벽도 건너갈 수 있게 만든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자신의 센터를 보라,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내년에 여기에 과연 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여기를 떠난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 사랑의 증거다. 앗차.

오늘 너희는 홀리를 축하했지? 홀리를 축하했느냐? 밥다다는 홀리 (Holi)를 축하하는 거룩한 (holy) 백조들을 보고 있다. 너희 자녀들 모두 “가장 거룩한 자”라는 똑같은 칭호를 갖고 있다. 동시대 이래로 그 어떤 의로운 영혼이나 위대한 영혼도 다른 모든 이를 가장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들 자신은 거룩해지지만, 그의 추종자들이나 동료들을 가장 거룩하거나 순수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반면에 여기서는 순수성이 브라민 생의 토대다. 너희 공부의 토대가 무엇이나? 너희들의 구호는, 거룩해지고 요기가 되어라! 이다. 너희는 이 구호를 갖고 있지? 순수성이 너희들의 위대함이다. 순수성은 요기인 너희들의 삶의 기초다. 자녀들아, 너희가 움직여 나아가는 동안 약간의 불순함이라도 마음으로 경험하거나 남들에 대해 낭비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럴 경우는 너희가 아무리 강력한 요가를 하기를 원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의 생각에 불순함의 흔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치 밤과 낮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불순함의 흔적 탓에 너희는 순수한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의 그로서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현재 이때 너희들의 주의를 되풀이해서 순수성에 환기시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바는 행위의 순수성에 대해서만 너희에게 신호를 주곤 했다. 그러나 이제 완성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너희 생각 속에 불순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기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 말, 행위, 관계 등 모든 것에 순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너희의 마음이 이에 관해 해이해지면 안 된다. 마음은 너희를 아주 많이 속일 수 있다. 브라민 삶의 내적인 유산은 끊임없이 행복과 평화의

화신이 되어서 너희 마음으로 충족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순수성이 필요하다. 외적인 시설물들에 대해서나 봉사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밥다다는 일부 자녀들이 때때로 이것 때문에 제 자신을 속이는 것을 본다. 그들 자신을 아주 훌륭하고 행복하다고 여김으로써 그들은 계속해서 제 스스로를 기만한다. 이것도 역시 심오한 비밀이다. 바바는 공여자이고 너희는 공여자의 자녀들이다. 때때로 너희의 봉사는 유티유티하지 못하고 뒤섞여 있어서, 그것의 일부는 기억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 다른 일부는 너희의 외적인 시설과 행복을 토대로 성취되는데, 그 행복은 너희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공여자이므로 너희들도 역시 봉사에 대해 실질적인 결실을 받는다. 너희는 행복해져서 너희의 봉사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결실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으로 충족감을 경험할 수도 없고, 너희 영혼들은 강력한 요그유티한 기억에 머물지도 못한다. 너희 스스로 이 경험을 박탈해버린다. 너희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이런저런 뭔가를 받기는 하지만, 아무 것도 축적할 수 없다. 너희는 뭘 벌든 다 먹어서 끝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너희는 봉사를 아주 잘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좋은 결실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단순히 그 전부를 다 끝내 버린다면 뭘 축적하겠느냐? 너희는 좋은 봉사를 아주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봉사의 결실은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는다. 결실을 축적하는 길은 너희의 생각, 말, 행위에 순수성을 가지는 것이다. 너희의 토대는 순수성이다. 봉사에서도 역시 토대는 순수성이니 깨끗하고 분명해져서 다른 어떤 동기도 없게 해라. 너희의 동기와 느낌에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 “홀리”는 순수성을 의미하며 모든 불순함을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홀리 기간에 사람들은 먼저 불태우고 나서 축하한다. 너희는 순수해지고 너희의 산스카라들의 조화를 축하한다. 홀리는 불태우고 축하한다는 뜻이다.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만날 때 서로 포옹하는 반면, 여기서 너희들은 산스카르들을 조화시키는 상서로운 만남을 가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홀리를 축하했느냐? 아니면 그저 춤추고 장미수를 뿌리기만 했느냐? 그것은 좋다! 너희가 원하는 한껏 축하해도 된다. 밥다다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장미수를 뿌리는 것을 보니 기쁘다. 너희는 또 춤춰도 되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춤을 추어라. 그저 5분, 10분만 춤추지는 마라. 서로에게 미덕의 파동이 퍼지게 하는 것은 장미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태우는 것에 관해서 너희는 뭘 태워야 하는지 알고, 심지어 지금도 그것을 계속 태우고 있다. 해마다 너희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하며 손을 든다. 밥다다는 너희들이 적어도 용기를 유지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그래서 밥다다는 너희의 용기를 축하한다.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첫째 단계이지만, 그러나 밥다다의 순수한 소망이 무엇이나? 날짜를 보지 마라. 그 일이 2000년, 2001년, 또는 2005년에 일어날 것인지 궁금해하지 마라. 오케이, 너희가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밥다다는 너희에게 이를 허용한다마는, 너희가 그 산스카르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에 관해 말할 때, 너희가 오랜 기간 동안 한 노력이 너희들로 하여금 오랜 기간 동안 왕국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너희들은 얘기한다. 너희가 필요한 때만 결심한다면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느냐, 일시적일 뿐이었느냐? 너희는 어느 칸에 표시를 하겠느냐? 그것은 짧은 기간뿐일 것이다. 아버지는 불멸한데 너희는 그에게서 어떤 유산을 차지하느냐? 일시적인 유산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게 맘에 들겠느냐?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므로 너희는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해야 한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인지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를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할수록 마지막에 기만당하는 일이 더 적을 것이다. 이것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제 스스로 현재의 행복과 오랜 기간 동안의 고귀한 단계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뭘 해야겠느냐?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하는 것이다! 만일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리기를 중단하고 준비를 시작해라! 오랜 기간에 대비해 너희 자신을 준비시켜라! 너희가 날짜를 데려와야 한다. 시간은 이미 지금도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 내일이래도 시간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완성되자마자 시간의 휘장이 건힐 것이다. 때는 단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 중에서 왕국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옥좌는 비어 둘 수가 없지 않느냐? 세계의 황제 혼자만 옥좌에 앉아 있다면 그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옳게 여겨지겠느냐? 그에게는 왕가의 가족 모두와 백성들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의 황제는 혼자서만 옥좌에 그저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는 자기 왕가의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에게는 너희 모든 자녀들에 대한 순수한 소망이 하나 있다. 오래되었든 새로 왔든 제 스스로를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너희가 마두반 거주자이든 바라트 거주자, 또는 외국인이든, 그저 얼마 동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너희 왕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도록 너희 자녀들 각자가 이를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할 필요가 있다. 너희는 이것이 맘에 드느냐? 한 손으로 손뼉을 쳐도 좋다. 뒤에 앉은 자들은 아주 영리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듣고 있다. 밥다다는 뒤에 앉아있는 자들도 바로 그의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앞에 앉아있는 자들은 어차피 앞에 있다. (메디테이션 홀에서 멀리를 듣고 있는 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래층에 앉아있는 자들은 밥다다 머리 위의 왕관이다. 그들도 역시 손뼉을 치고 있다. 아래에 앉아있는 자들은 버림에 따르는 행운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바바 앞에 직접 앉은 행운을 받은 반면에 그들은 버림에 따르는 행운을 쌓고 있다. 앗차. 너희들 모두 밥다다가 가진 이 한 가지 소망을 들었느냐? 이것이 너희 맘에 드느냐? 그렇다면 내년에 바바가 뭘 보겠느냐? 너희들은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을 들겠느냐? 너희는 손을 들어도 되고 양손을 다 들어도 좋다만, 너희 마음의 손도 역시 들어야 한다. 결의의 손을 영원히 들어라.

밥다다는 완전한 순수성의 보석이 각자의 이마에서 빛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는 너희의 눈에서 순수성이 반짝이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는 두 눈의 별들이 영성의 광채로 반짝이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는 너희의 더없이 값진 말들 속에 다정함과 특별함을 듣기를 원한다. 그는 너희의 행동에서 한결같은 충족감과 겸손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의 느낌에 끊임없이 좋은 염원이 담겨 있게 하고 너희의 동기에 끊임없이 형제애의 태도가 깃들여 있게 해라. 너희 머리 둘레에 한결같이 천사의 빛의 후광이 보이게 해야 한다. 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밥다다는 너희를 이렇게 치장된 형상들로 보기를 원한다. 그러한 형상들만이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가장 고귀한 영혼이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은 너희들의 살아 있지 않는 형상들을 만들 테지만, 아버지는 너희들이 살아 있는 이 형태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앗차.

은 사방의 모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가깝고 변함없는 동반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서 합류시대와 미래 왕국에 대한 권리를 오랜 기간 동안 차지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미덕들과 힘으로 치장하는 그렇게 지극히 지각 있는 영혼들에게, 바바의 희망의 등불인 영혼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단계에 변함없이 안정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대등한 지극히 사랑스러운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 복:** 애착의 완전한 정복자가 되고 카르마의 계좌 형태로 오는 역경의 유인도 역시 끝내라.

이제까지는 물질이 만들어낸 역경이 너희의 단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몸에 대해 남아 있는 카르마의 잔고와 남아 있는 카르마의 고통의 형태로 오는 상황들은 너희를 제일 많이 끌어당길 것이다. 이 유인마져 끝나면 그때는 너희가 애착의 완전한 정복자라고 불릴 것이다. 몸과 육신의 세계의 상황들은 너희 단계를 전혀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단계다. 그런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는 너희가 쉽게 1초에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단계에 너희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슬로건:** 순수성의 맹세가 참된 나라안의 가장 고귀한 맹세이며, 그 안에 초감각적인 즐거움이 들어 있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